

일감 없어 절반 이상 발돌려 “하루 벌어 먹기도 힘들어요”

■본사 수습기자 일용 근로자 체험해 보니

첫눈이 내린 데다 수능까지 영하권으로 떨어진 지난 19일 새벽 광주 시 북구 중흥동 일용근로자 대기실. 경기가 좋았던 시절 하루 80~90명의 일용근로자로 북적댔다는 대기소는 오히려 한산했다. 일용근로자들의 막노동 일감도 줄어들면서 절반 이하인 30~40여명만이 이곳을 찾고 있었다. 새벽 5시가 넘어서면서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한 근로자들이 어느새 20여명으로 늘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곳을 찾는 터줏대감격 10여명을 더해 이날 이곳을 찾은 사람은 30명 남짓. 기자도 이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문을 연지 채 30분도 안 돼 근로자 대기소 앞 쓰레기통은 빈 커피 종이컵으로 가득 찼다. 몇몇은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일이 있겠어”라며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새벽 6시가 넘어서면서 일감이 주어져서. 기자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작업반장을 자처한 50대의 S씨가 “일 끝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니 적당히 표정관리를 해야 해”라며 기자를 비롯, 젊은 대기자 3명에게 귓속말을 했다. S씨는 “짧았을 때는 제과점, 노래방, 식당도 운영했지만 문을 닫고 2년 전부터 막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일감이 없는 근로자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목수일만 30년째 해왔다”는 50대는 “지난주 일주일 나가서 딱 하루 일했다.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다. 해장술이나 해야겠다”며 발길을 술집으로 향했다.

새벽내내 대기소에서 떨었던 중년 여성들은 “오늘도 공쳤네. 배추작업이 아니라도 일할 수 있는데”라며 한숨지었다. 이 대기소에서 이날 일감을 잡은 근로자들은 15명. 대기소 관

제자는 “절반은 작업복도 꺼내보지도 못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기자 등 일행은 택시를 타고 작업현장으로 떠났다. ‘막일’ 경험이 없는 기자도 쫓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택시 한 칸을 차지했다. 택시가 멈춘 곳은 광주 시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 공사현장. 택시비 1천원씩을 나눠내고 작업장으로 들어섰다.

공사장 한쪽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S씨의 지시 아래 작업을 시작했다. “11층부터 1층까지 모델 객실마다 있는 가구 박스를 뜯고 배치한 다음 빈 박스를 1층으로 내리고, 청소까지 하면 하루가 끝날 거네. 자네는 칼 들고 박스를 자르고, 자네는 바닥 청소, 자

네는 박스하고 쓰레기를 아래로 내리면 되고...”

기자는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다는 H(34)씨와 함께 박스를 자르는 일을 맡았다.

“타일 붙이는 일을 하면 하루에 13만원까지 받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일이 워낙 없어서 허드렛일을 잡는 게 어려워요.” H씨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만두고, 7개월전부터 ‘막일’을 시작했다.

5년간 일하면서 정든 직장이었지만 일감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 타일을 벽과 바닥에 붙이는 기술을 배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타일 일감은 물론, 잡일도 찾기 힘들어 규모가 큰 근로자 대기소를 찾아 나섰다.

이날 일당은 7만원. 대기소 소개비 7천원을 뺀 6만3천원이 손에 쥐어졌다. 한달 중 운 좋게 보름을 일한다고 해도 90만원 이상을 벌기 힘든 형편이다. 오후 3시께, 막노동관의 행복인 새참시간이 찾아왔다. “2~3년 전만 해도 힘든 일, 지저분한 일은 피하려고 했는데, 요즘엔 일만 있다면 무조건 달려드는 분위기다.” 묵묵히 일만 하던 K(24)씨가 한마디 했다.

이날 오후 일을 마치고 들른 근로자 대기소 인근 선술집에는 일을 나가지 못한 근로자 3~4명이 막걸리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TV만 틀면 ‘경제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올 겨울, 일용근로자들의 가슴은 더욱 얼어붙어 있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빼앗긴 일용직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그들은 매일 동네 근로자 대기실을 찾고 있지만 일감이 없어 되돌아오기 일쑤다. 지난 19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텔 건설현장에서 일용 근로자 체험을 하고 있는 본사 김형호 수습기자.

일용 근로자 광주 10.7%·전남 36% 늘었다

경기침체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내몰린 노동자들이 일용직 근로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 광주·전남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광주 시내 일용근로자 수는 4만8천명, 전남은 9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같은 시기에 비해 광주는 10.7%, 전남은 36.4%나 늘어난 수치다.

광주 시내에 산재한 일용직 근로자 대기소는 대략 30여개. 광주시 동구에서 7년째 근로자 대기소를 운영하

는 안모(59)씨는 “매일 절반 정도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자를 모두 작업장에 내보냈을 때가 언제지도 기억

못 ▲광산구 송정동 D대기소 7명→1명에 불과했다. 실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가장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근로자 대기소에서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장일 등 기술이 있는 근로자들도 일감이 훨씬 적은 단순 노동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늘었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 여성들, 문근영에 굴비 보낸 이유는

“악플·색깔론에 굴복 마세요”

“문근영씨, 굴비 먹고 힘내세요.”

인터넷 ‘악플’(악성댓글)과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제기한 ‘색깔론’에 시달리는 텔런트 문근영에게 영광 여성단체 회원들이 영광 굴비를 선물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영광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찬자)는 23일 영광 지역 특산 물인 영광 굴비 한 두름(10마리)을 최상품으로 마련해 문근영 소속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영광 굴비는 서해 칠산 앞바다에서 잡힌 조기를 천일염으로 염장(鹽漬)하고 법성포 해변에서 바닷바람에 말려 가공한 것으로, 산지인 법성포에서 최상품이 1마리에 3만원 이상씩 받고 팔린다.

여성 회원들이 굴비 선물을 보낸 것은 ‘국민여동생’ ‘기부천사’로 불리어 온 문근영의 선정을 일부 네티즌이 출신 지역과 가족사까지 들먹이며 매도하자 ‘뜻을 굽

히 말고 떳떳하게 행동하라’는 굴비의 이름 유래를 담아 전달했다는 것.

굴비(屈非)라는 이름은 고려시대 영광으로 유배됐던 이자겸이 법성포의 말린 조기를 맛본 뒤 임금에게 진상품으로 올리면서 자신의 뜻만큼은 굽히지 않겠다는 의미로 붙인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정찬자씨는 굴비 상자와 함께 보낸 편지에서 “어린 나이지만 존경과 사랑을 보낸다”며 “착하고 순박한 모습으로 세계 제일의 배우가 되어 달라”고 적었다.

정씨는 “영광 굴비에는 절대로 비굴해지지 말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도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맛이 일품일 뿐 아니라 영양분이 풍부해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원기 회복에도 좋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나원침 (7660) 김장동



다 좋은 건국·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저렴 및 상담 환영**
▶ 사무보시 : 02) 3445-0943
▶ 사무상담 : 061) 337-0571

‘노무현 측근’ 정화삼씨 형제 영장 박연차 회장 100억 시세차익 수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3일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가법상 알선 수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정화삼(62)씨와 동생 정광용(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62)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서도 세종증권 주식을 일부 차명 거래해 1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번지면서 게이트로 비화하지 않을까 주목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형제는 2006년 초 세종증권이 농협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세종증권의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 흥모(59)사장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습위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화삼씨는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기로 제퍼로스 골프장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전날 세종증권 매각과정에서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에 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세종캐피탈 흥 사장을 구속했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대학가 돌며 상습 절도

○광주북부경찰은 23일 광주의 한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이모(24)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중앙동 모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과 교내 방송국에 침입해 이 학교 학생 J(여·21)씨의 125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를 훔쳐가는 등 최근까지 광주 지역 대학교 두 세 곳을 돌며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광주의 한 금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한 것이 확인돼 경찰에 달미.

○경찰은 이씨가 캠퍼스 절도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다른 지역의 대학교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 /이종형 기자 golee@

GP 내무반 수류탄 폭발 5명 중·경상

23일 새벽 1시50분께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소재 육군 모 사단 예하 GP(전방초소) 내무실에서 수류탄 1발이 폭발해 이모(21) 이병이 중상을, 허모(21) 병장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육군이 밝혔다.

이날 사고는 병사 17명이 잠을 자고 있던 GP 내무반에서 세월수류탄 1발이 원인 미상으로 폭발해 발생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이 사고로 이 이병은 두부과 목등뼈에 파관상으로 의식을 잃어 서울의 민간병원으로 재이송됐으며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인 허 병장 등 4명은 우측 가슴과 이마, 손가락, 좌측머리, 우측 허벅지 등에 열상을 입었다.

육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원주인생보험
무보통 산출대금 1,000만원까지 가능!
*담보대출 안내
*수사업자 대출 안내

대출금액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연이자율	1.5%	1.5%	1.5%	1.5%	1.5%
월이자	150,000원	225,000원	300,000원	450,000원	750,000원
월상환액	150,000원	225,000원	300,000원	450,000원	750,000원
상환기간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신원주인생보험
1박2일 99,000원
2박3일 99,000원
*대출금리 안내
*수사업자 대출 안내